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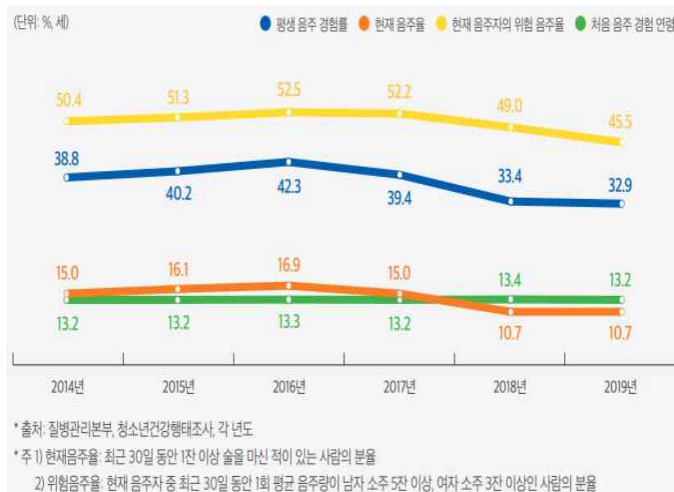
11월은 음주폐해예방의 달!

음주폐해예방의 달이란?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 음주사고 등이 급증하는 연말연시에 대응하여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절주 문화를 확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매년 11월에 기념식 및 릴레이 홍보캠페인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예방, 지금 시작!

술은 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합니다. 술은 청소년 유해물질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첫 음주경험 연령은 13.2세이며 전체 청소년의 15%가 현재 음주자입니다(2022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



청소년의 음주는 대인관계 문제, 정신건강 문제, 자살행동 증가 등과 관련되며, 성인기 음주문제 및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소년은 또래 문화와 유행에 민감하므로 술의 유해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음주는 왜 위험할까요?

첫 번째, 적은 양의 술도 성인보다 더 해롭습니다.

청소년기 음주는 심장, 간 등 주요장기에 손상을 주며 발육 부진 등의 성장장애를 초래합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뇌 전두엽 부위의 성장이 완료되지 않아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영구적인 뇌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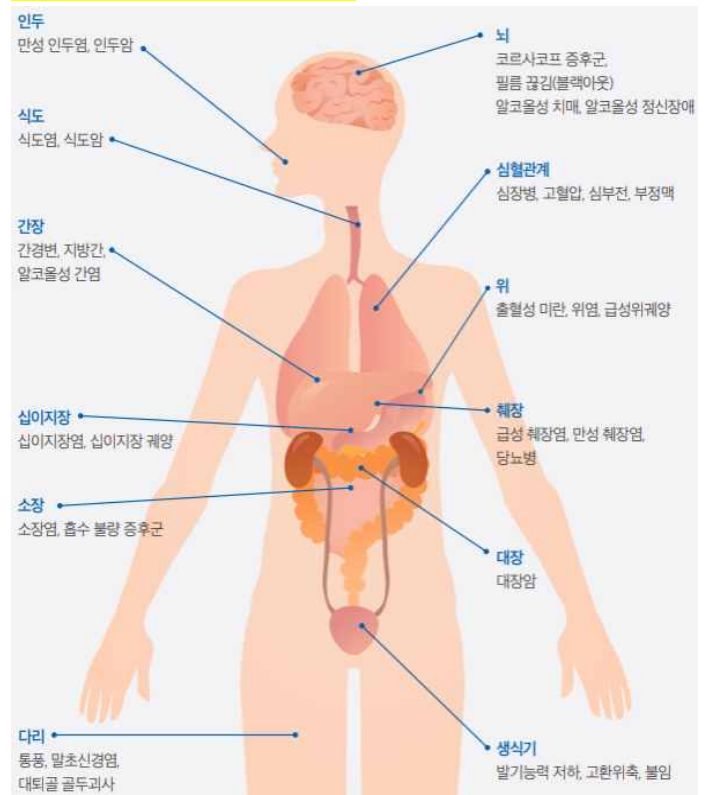
두 번째, 비행행동의 관문이 됩니다.

청소년은 술과 함께 담배 등 다른 유해물질에 중독되기 쉬우며, 이는 가출, 폭행, 절도, 음주운전, 강간 등의 사고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인기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면 어른이 되었을 때 과음이나 폭음할 가능성이 커지고, 처음 술을 마신 나이가 어릴수록 알코올 의존자나 남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은 인두, 식도, 간, 십이지장, 소장, 다리, 심혈관계, 위, 췌장, 대장, 생식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발병 질환으로는 만성 인두염, 식도염, 간경변, 십이지장염, 소장염, 통풍, 코르사코프 증후군, 심장병, 출혈성 미란(위), 급성 췌장염, 대장암, 발기능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억제제로, 중추신경계의 전반적인 기능을 저하시키며, 음주 후 피로, 어지럼증, 졸림, 권태, 구토, 두통, 혼미 등의 증상을 유발시킵니다. 중추신경계의 기능 억제는 음주량과 비례하며, 지나친 음주는 발음 부정확, 운동 기능 저하, 기억력 장애로 인해 필름이 끊기는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ARC)에 따르면 알코올이 함유된 주류(1군 발암물질)와 알코올의 분해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2B군 발암물질)는 유방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간암 등의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참고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교육 자료)

